

지역 소식통

고창군,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전북 고창군이 '고창형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시장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청년들에게 전문적인 일자리를 지원해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한다.

대상 사업장은 9~23일까지 모집이 진행된다. 관내에 주소를 둔 법인(단체)과 사회적기업에서 디지털 전문분야(온라인 콘텐츠 제작·관리, 온라인플랫폼 구축, 비대면 고객지원 업무, 홈페이지 제작·관리 등에 소정의 자격을 갖춘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인재를 채용하면 인건비와 교통비 등을 최대 12개월 지원한다.

총사업비 2억2600만원을 활용해 지난해부터 시행된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기존 체결자를 포함한 총 13명 정도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고창군청 형광회 상생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청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경영인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지방세 심의위원

15명 위촉장 수여

고창군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공정한 세무행정을 위해 9일 군청 상황실에서 지방세심의위원 위촉장을 수여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모두 15명으로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지방세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13명과 공무원 2명(문화복지환경국장 재무과장)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이다.

위원들은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심의,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결정, 지방세관제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된 사항 등을 심의 의결 등을 담당하게 된다.

고창군수는 "지방세 관련 고충을 해결하며 세정업무 발전을 위한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며 "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상권 자생력 강화 집중할 것”

부안군 상권 르네상스 사업 본 궤도...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부안군이 나후된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1단계 기반사업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추진돼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부풍로와 시장길, 동중로 등 부안군 구도심 일대 20만 342㎡(63.6개 점포)이하 마실상권) 규모로 추진되며 지난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같은 해 12월부터 오는 2025년 11월까지 총 80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전북지역 군단위에서는 부안이 최초로 선정돼 사업을 추진 중이다.

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쇠퇴한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 상권의 특색을 반영한 거점공간 조성, 지역의



특징을 반영한 테마구역 설계 및 운영, 상품과 서비스 개발 상인 교육 등으로 진행된다.

군은 상권 르네상스 사업 추진에 있어 2023 세계잡버리 및 지방정원 조성 등을 상권 재도약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도시재생 뉴딜사업(국토교통부)과 연계해 부안투어센터(여행소비자 거점)를 조성·운영하는 등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글로벌 상권을 구현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찾아오는 상권이 될 수 있도록 지난해 공유점포, 공유부엌, 쥬음의 거리 내 옥상 루프트랩 조성 등 1단계 기반 사업을 완료했다.

공유점포는 소포장 지역농산물과 타 지역 특산품을 홍보 판매함으로써 관광객과 주민들의 구매를 유도해 구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이다.

공유부엌은 예비창업자의 창업공간 제공과 단기·근거리 관광객의 체험 및 여가공간 제공을 위한 사업이며 쥬음의 거리 내에 옥상 루프트랩을 조성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동행으로 같이 살아가는’ 고창군

장애인복지 예산 126억원 투입

고창군이 올해 126억원을 들여 장애인복지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장애인 복지사업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유지·지원을 위한 돌봄지원사업으로 이뤄진다.

먼저, 장애인연금은 전년대비 25%가 인상된 월 최대 30여 만원의 기초급료를 지원한다.

만 18세미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인 장애아동에게 지원하는 중증·경증장애아동 수당을 1~2만원까지 인상해 장애아동가족의 경제적 생활안정을 돕는다.

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중증장애아동 돌봄확대를 위해 지원 단가 인상과 시간을 연장에 가족의 돌봄부담을 낮춘다.

특히 성인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 시간 보장을 위해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을 확대했다.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수급자로 전환돼 급여가 줄어드는 경우에도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기로 했다.

그간 여성장애인에겐만 지원하던 출산비용을 올해부터는 남성장애인 배우자 가정에도 지원해 장애인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준다.

아울러 지역사회자원(장애인복지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주간보호센터,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 등을 활용해 지역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늘려갈 방침이다.

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장애인일자리 참여자의 임금도 상향조정(전일제 기준 5%)하며, 특히 급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전북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라는 경제적 활동의 기회가 거의 없는 최종중증장애인(10명)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의무인증 대상 확대한다. 인증 대상이 아니더라도 장애물 없는 실생활 환경이 정착 될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인권 한마당 어울림 행사(장애인인권영화제, 장애인문화예술공연 등)'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밖에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신장 장애인에게 혈액 투석비, 휠체어 등에 대한 수리비, 장애등록진단 및 검사비,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비, 장애인신문 보급 등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사업이 진행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코로나 위기 청년·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추진

정읍시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맞춤형 일자리 발굴과 청년 자립 지원 등 시민 일자리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의 고용 기회 확대와 취업 취약계층의 취업 성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며 양질의 일자리 지원에 나서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

용업체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공공형 일자리 5개 사업과 기업형 일자리 9개 사업에 총 48억원을 투입해 매월 6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국비를 포함한 6억원을 확보해 3개의 신규사업도 추진한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신성장 산업



체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과학기술 및 IT산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사업, 지역특화산업 청년창업 성장 지원사업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와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정읍농협은 지난 8일 정읍시청에서 정읍시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했다.

치유농업 육성 첫 단추 끼워

정읍시, 전북대·농협중앙회·정읍농협 업무협약 체결

정읍시와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정읍농협은 지난 8일 정읍시청에서 '정읍시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유진섭 시장과 백승우 전북대 농업생명과학대학장, 정재호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장, 유남영 정읍농협 조합장을 비롯한 관계자 16명이 참석했다.

이들 기관은 상호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육성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협약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치유농업 분야의 기술정보를 교류하고, 전문인력 육성과 활용방안 모색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 치유농업 관련 콘텐츠와 프로그램 운영·개발하고, 각 기관의 치유

농업 시범포장과 시설물 이용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치유농업 확산과 조기 정착을 위해 협력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필요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치유농업 비전을 설정하고 종합적인 계획과 정책 수립, 제도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전북대학교는 교육훈련과 전문인력양성,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와 정읍농협은 현장 적용 기반 조성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지원 등을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치유농업은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해 국민의 건강 회복, 유지, 증진을 도모하고 체험을 넘어 치유라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 일상감사·월가심사 사전컨설팅 교육

부안군은 지난 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사·용역담당 공무원 및 인허가 업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일상감사·월가심사 사전컨설팅 교육 및 반부패 청렴정책 토론회를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8·9급 신규공무원과 인허가 담당 등 2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일상감사·월가심사 대상,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사업예산 절감방안을 공유했다.

군은 이를 통해 2022년 상반기 신속 집행과 사전컨설팅을 통한 적극행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부패취약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주요 질의 및 위반사례 공유, 반부패·청렴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해 부정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군 관계자는 "일상감사로 사업시행 전 오류를 시정하고 예산낭비를 차단하는 등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해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악화되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